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9. No. 3, 2008

한의과대학생들의 자아방어기제 특성에 대한 예비적 연구

김지영, 조혜영, 김윤용, 조성훈, 황의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교실

The Preliminary Study of Defense Mechanisms of Oriental Medicine Students

Ji-Young Kim, Hye-Young Cho, Yun-Yong Kim, Seung-Hun Cho, Wei-Wan Whang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mechanism of oriental medicine students by using Ewha Defense Mechanism Test(EDMT) preliminarily.

Method: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mechanism of oriental medicine students and compared the scores of EDMT with standard group. We analysed the differences of defense mechanism by sex(male, female) and age($\leq$29 and $\geq$30 yrs old) within oriental medicine students. The score of EDMT were verified by examination of one sample t- test and unpaired t- test.

Results and Conclusions: First, there was no Major Defense Mechanism in oriental medicine students. Second, oriental medicine students had more defensive, passive inclination and used Evasion and Show-off more frequently. Third, the differences within oriental medicine students depended on age rather than sex. The younger students used immature and neurotic defense mechanisms more frequently, and the older students had more defensive and passive inclination.

Key Words : Ego defense mechanism, Ewha Defense Mechanism Test, oriental medicine students

투고일 : 10/7 수정일 : 11/9 채택일 : 11/12
* 교신저자 : 황의완,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l : 02-958-9188~9, Fax. 02-958-9187, E-mail : hnp9188@hanmail.net

Ⅰ. 서 론

자아방어기제(Ego defense mechanisms)란 인간이 생활 경험에서 직면하는 충동, 욕구, 열등감, 불안에 대응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적 양식으로 개인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자극을 조정하려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이거나 이러한 목적을 지닌 의식적 행동으로[1], 신경증적인 사람은 훨씬 빈번히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편향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2], 환자 뿐 아니라 정상인도 계속적으로 방어기제들을 사용한다[3]. 현재 실험적 방법으로 자아방어기제의 실체에 충분히 접근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실험연구들은 자아방어기제의 실제를 지지해주고 있고 자아방어기제의 본질을 규명해 주고 있다.

방어기제와 성격유형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방어기제가 성격유형의 한 행동표현이며 성격 형성의 기초로써 작용한다는 초기 정신분석 연구들 이후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아방어기제가 개인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유지됨으로써 개인의 성격과 연관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4]. 따라서 자아방어기제를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의 적응양식이나 성격 유형을 규명하여 개인의 적응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개개인의 방어기제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본적 특성이나 집단 내의 특유한 행동양식, 적응방식 등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학습을 하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이 선호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며 전공별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게 되므로, 각 전공마다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성격유형들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학 계열의 경우에는 타집단과의 차별성이 비교적 큰 편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방어기제를 통한 특성 연구[4-7]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과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입시과정을 통해 진학한 학생들과, 일반대학과정을 졸업하고 직장 및 군복무 등의 사회생활을 경험한 다양한 학업적·직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아직까지 한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어기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질문지 형태의 이화방어기제검사를 사용하여 예비적인 수준에서 한의과대학생들의 방어기제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의과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아방어기제가 있을 것이며, 일반 대학생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한의과대학생들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자아방어기제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셋째, 한의과대학생들 중 높은 연령의 학생들은 낮은 연령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자아방어기제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에 K 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중 설문 검사에 응해준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79명 중 남학생은 59명, 여학생은 20명으로 남:여 약 2.95:1의 비율이었다.

연령은 23세부터 38세까지로 평균나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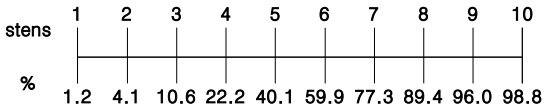
27.47±3.65세, 연령중앙값은 26세이며, 29세 이하가 59명, 30세 이상이 20명이었다(Table 1).

2. 연구방법

1) 평가도구

이화방어기제검사(Ewha Defense Mechanisms Test)는 한국의 전래속담을 기초로 하여 한국인이 구사하는 방어기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20개의 방어기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별로 10문항씩 총 200문항으로 이루어진 객관식 지필검사이다.

검사는 제공된 검사 실시요강[8]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각 피검자의 방어기제 척도별 원점수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텐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여 채점하였다. 이화방어기제검사 실시요강에 따르면 스텐점수 5-6점은 평균 점수, 4점과 7점은 평균에서 약간 이탈된 점수, 2-3점, 그리고 8-9점은 평균에서 심하게 이탈된 점수, 1점과 10점은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점수라고 해석이 되며, 평균 수준에서 의미있게 벗어나 있는 스텐점수는 3점 이하, 8점 이상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2) 자료분석방법

한의과대학생들의 스텐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각 척도별로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높은 스텐점수와 낮은 스텐점수를 보이는 주요 방어기제와 척도들 간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척도별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학생의 빈도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의과대학생들과 규준집단인 일반대학생들을 비교하였고, 한의과대학생들 가운데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다.

자료분석 및 통계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규준집단과의 비교는 일표본 t 검정, 성별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으로 검증하였다. 통계적 의의는 $p<0.05$ 수준으로 하였다.

Ⅲ. 결 과

1. 한의과대학생들의 방어기제 특징

한의과대학생들의 방어기제를 기존의 표준화 자료를 토대로 스텐점수로 환산한 후 평균을 구하여 척도별로 살펴보았다. 각 척도별 스텐점수는 대부분 4-6점 범위에 해당하였으며 특별히 낮은 점수(≤3점)나 높은 점수(≥8점)에 해당하는 척도는 단 하나도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척도가 규준집단 평균수준인 5.5점 이하였으며, 투사, 동일시, 퇴행, 회피, 허세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규준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0.05).

한의과대학생들의 방어기제척도 간 비교에서는 투사, 회피, 허세척도가 5.5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부정과 왜곡, 행동화, 통제, 합리화, 이타주의, 억제척도가 4.5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스텐점수를 보였다(Table 2)(Fig. 1).

스텐점수 8점 이상인 학생의 빈도를 방어기제척도별로 살펴보면, 회피를 주요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17명(21.5%), 허세가 16명(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행 14명(17.7%), 유머 13명(16.5%), 해리 12명(15.2%), 수동공격 10명(12.7%), 반동형성, 동일시 각 9명(11.4%) 순이었다. 부정, 합리화는 각 1명(1.3%), 억제 2명(2.5%), 신체화 3명(3.8%)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Table 3).

2. 한의과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교

한의대학생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남여로 구별하여 스텐점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허세(<0.05)와 해리(<0.05)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연령별로 나눈 후 다시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경우, 높은 연령(≥30세)에서는 전치(<0.05), 신체화(<0.01), 행동화(<0.05)척도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낮은 연령(≤29세)에서는 더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어 허세(<0.05)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Table 4).

3. 한의과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비교

한의대학생 집단 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29세 이하와 30세 이상으로 나누어 스텐점수를 비교해보았다. 높은 연령의 학생들은 매우 특이적으로 평균 스텐점수인 5.5점을 넘는 척도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방어기제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자기애적 방어기제 중 부정과 왜곡척도가 신경증적 방어기제 중 전치, 통제, 합리화, 해리척도가 성숙한 방어기제 중 예견, 이타주의척도의 경우 백분위 22.17% 수준인 4.0점 보다 더 낮은 스텐점수를 보였다. 낮은 연령의 학생들과 비교하여서도 유머척도를 제외하고 모든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자기애적 방어기제 중 투사(<0.01),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 신체화(<0.05), 신경증적 방어기제 중 전치(<0.01)와 해리(<0.05), 성숙한 방어기제 중 예견(<0.01)척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단지 성숙한 방어기제인 유머(=0.880)척도가 유일하게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Table 5)(Fig. 2).

IV. 고 찰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생들의 자아방어기제의 특성을 조사해봄으로써 한의과대학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한의과대학생 집단 내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방어기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아방어기제의 측정도구로는 이화방어기제검사(Ewha Defense Mechanisms Test)를 사용하였는데, 개인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딪치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의식적, 무의식 수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 및 태도를 자아방어기제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사고나 정서과정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담을 사용하여 어떤 갈등 상황에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질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8].

한의과대학의 경우 학문 및 커리큘럼 상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동시에 타과와는 달리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후 바로 진학한 학생들과, 일반대학과정을 졸업하고 직장 및 군복무 등의 사회생활을 경험한 다양한 학업적·직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의과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성인학습자의 입장에 있는 일부 학생그룹을 구분하여 기술한 내용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의 동질적인 특징 뿐 만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 한의과대학생 전체적인 특징 고찰과 더불어 나이대별, 성별에 따른 비교도 같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는 총 79명으로 남:여 약 2.95:1의 비율이었으며, 이는 본과 4학년 전체 및 K 한의과대학의 전체 성비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의과대학생들이 특징적으로 우월하게 사용하는 주요방어기제는 없었으며, 나이 및 성별에 따른 규준집단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척도에서 규준집단 평균인 5.5점보다 낮은 스텐점수를 보이고 백분위 59.9%에 해당하는 6점을 넘는 척도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한의과대학생들의 방어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MMPI검사에서 대학생그룹과 같이 도시에 거주하고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방어척도인 K척도가 높다[9]는 점도 이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한의과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보다도 더욱 강하게 방어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점 이상의 높은 스텐점수를 보인 학생의 빈도를 통해 볼 때, 회피 또는 허세를 주요방어기제로 사용하는 학생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피척도는 억제와 같은 인내심 있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도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동기에 따른 반응의 철수를 의미하며, 허세척도는 한국인 특유의 자아방어기제로 추가된 것으로 남 앞에서 겉으로 과시하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생들 가운데 갈등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여 외적인 상황에 순응하고 문제해결을 체념하는 행동방식을 고수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수로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특히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는 남녀 차이가 더욱 미미해져 허세(<0.05)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의학, 법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간호학,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는 여대생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심리적 남성성을 보였으며[10],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뇌기능 특성화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뇌기능 편재성의 차이가 1995년도에는 존재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그 차이가 사라져 남학생과 여학생의 뇌기능 편재성이 유사해졌다[11]는 점에 비추어보아, 한의과대학생에서 자아방어기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연령과 대학 졸업 유무가 자아방어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일반화하여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자아방어기제는 과거경험적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업적·직업적 배경이 다양한 높은 연령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입시과정을 거쳐 진학한 낮은 연령의 학생들에 비하여 갈등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방식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미성숙한 반응보다 성숙한 반응의 방어기제를 더욱 자주 사용 할 것이며, 방어적 성향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닌 외부적으로 대인관계를 통하여 해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일반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의 학습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생은 선행경험이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로 인해 전략적, 적극적, 심층적으로 학습을 조직화 하고 호기심, 독창성, 미래지향성, 자신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것[12]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높은 연령의 한의과대학생들은 모든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낮은 연령의 학생들보다 더욱 자기방어적인 경향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으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성숙한 방어기제에서도 유머를 제외한 예견, 승화, 이타주의척도 모두가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이는 이미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일종의 사회적 위치가 역행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상황적 자극에 대하여 높은 연령의 한의과대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과 달리, 더욱 방어적이고 승화나 이타주의 같은 대인관계 상에서 적극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군을 한데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개별적 방어기제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개인의 특징적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13], 연령에 따른 차이를 이화 방어기제검사 표준화연구[14,15]에서 추출된 4가지의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령이 높은 학생들에서 불안정한 예민화 방식(요인 1)에 해당하는 전치(<0.01), 신체화(<0.05), 해리(<0.05), 투사(<0.01)척도가 낮은 수준을 보여, 연령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를 비교적 덜 사용하면서 정서의 불안정성이나 예민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확대적 방식(요인 2) 중에서 유우머 척도가 낮은 연령의 학생보다 경미하나마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긴 하였으나, 통제, 왜곡, 예견(<0.01), 이타주의, 승화척도 모두 역시 낮은 수준을 보여,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타인을 조절, 변형하려고 하거나 도와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순응하거나 체념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 또는 자신을 낮추거나 가볍게 표현하여 긴장도를 낮추고자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방어적인 특성을 볼 수 있었다.

개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자아방어기제와 MBTI 성격유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보고가 있다. 공통되는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E)은 통제, 왜곡, 승화, 이타주의, 유머 척도와, 내향성(I)은 회피 척도와, 감각형(S)은 예견 척도와, 직관형(N)은 유머 척도와 상관이 높으며, 판단형(J)은 예견, 합리화 척도와, 인식형(P)은 수동공격, 해리, 퇴행, 유머, 회피 척도와, 사고형(T)은 예견, 감정형(F)은 이타주의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16,17]. 한의과대학생들의 MBTI 결과에 대한 기존 보고[18,19]에 의하면 EI 선호지표에서 내향성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외향성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왜곡, 통제, 이타주의 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내향성과 상관성이 높은 회피 척도는 다른 척도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인식형과 상관성이 높은 수동공격, 해리, 퇴행 등의 척도가 자주 사용되는 방어기제로 나타나 기존의 판단형 선호 경향이 높다는 연구[18]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의학에서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는 사상체질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MBTI 성격유형을 사상체질과 연관지어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18,19]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각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어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음인의 경우 다른 체질에 비해 내향성 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고 되는 바이다. 한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소음인 비율이 52.31%[20], 55.9%[18], 66.6%[19] 등으로 보고되어 소음인이 타 사상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한의과대학생들의 경우 내향성 선호 기질이 높게 나타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앞서의 내용과 결부시켜 본다면 회피 방어기제가 한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어기제일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성별, 나이에 따른 비교 외에 사상체질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를 비교해보았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한의과대학생들의 자아방어기제 특성과 한의과대학생 중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점을 보임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K 대학교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한의과대학생의 특징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둘째, 자아방어기제는 주로 무의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설문지 검사는 피검자의 의도에 따라 피검자의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화방어기제검사 외 다른 종류의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규준집단 표준화가 1990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세월의 흐름에 의한 것인지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방어기제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초보적 수준의 주관적인 제안정도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의미있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는다면 한의과대학생들의 적응 및 교육방향, 진로선택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금까지 MMPI, MBTI 등을 통한 성격유형과 자아방어기제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1,16,17]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상의학과 MMPI, MBTI 등을 통한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18-20]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아방어기제와 사상의학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추후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생들의 자아방어기제의 특성을 조사해봄으로써 한의과대학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한의과대학 내부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방어기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초보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의과대학생들이 특징적으로 우월하게 사용하는 주요방어기제는 없었다.

둘째, 한의과대학생들은 방어적인 특성을 보였다.

셋째, 회피와 허세를 주요방어기제로 삼는 학생이 각각 2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넷째, 성별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특히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는 남녀 차이가 더욱 미미하였다.

다섯째, 높은 연령의 학생들은 낮은 연령의 학생들보다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나, 갈등상황에서 대인관계를 통한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징을 더욱 강하게 보였다.

참 고 문 헌

1. 전현민, 박영숙. MMPI 프로파일 유형들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1995;14(1):191-199.
2. Phares, E.J. 성격심리학. 홍숙기 역. 1987. 서울: 박영사.
3.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한방신경정신의학. 파주:집문당. 2005:124-127.

4. 정한용, 한선호, 최의정, 김동욱. 진로선택에서 나타난 의과대학생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1999;38(6):1412-1420.
5. 정한용, 김동욱. 전공계열의 분류에 따른 전공의들의 자아방어기제. 한국의학교육. 2000;12(1):71-80.
6. 정한용, 김양래. 내외과계열에서 나타나는 자아방어기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 2001;13(2):333-342.
7. 최의정, 정한용, 이소영, 한선호, 우성일. 외과의사들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정신병리학. 2001;10(1):44-52.
8.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대학생 · 성인용 이화방어기제검사 실시요강. 서울:하나의학사. 1991.
9. 김용미.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성격 및 가정환경의 특성 연구: 법대 및 의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992;30(1);257-265.
10.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다면적 인성검사 II 매뉴얼. 서울:마음사랑. 2005.
11. 안의태, 김민정, 고정식, 박경호, 박대균, 정은주. 의과대학 학생의 뇌기능 특성화 경향 연구.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006;19(4);267~277.
12. 윤소정, 이상엽, 강신영, 정해진. 의과대학생와 의학전문대학원생 간의 학습성향 차이. 한국교육. 2007;34(3);3~27.
13. Bond M, Gardner ST, Christian J, Sigal JJ. Empirical study of self rated defense style. Arch Gen Psychiatry. 1983;40;333-338.
14. 이근후, 김재은, 김정규, 박영숙. 이화방어검사 표준화연구. 미발표. 1991
15. 이기종. 이화방어기제검사의 심리측정학적 특성 재조명. 교육평가연구. 1999;12(1);83-100.
16. 김유심, 채준호, 박영숙. MBTI 성격유형과 이화방어기제 상관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9;6(1):67-88.
17. 황승숙, 김은주.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방어기제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2;32(4):447-458.
18. 최선미, 지상은, 정봉연, 안규석, 고병희, 성현제. QSCCII와 MBTI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의 성격유형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6(1):47-57.
19. 이재형, 채한, 박수진, 권영규. QSCCII 반복측정결과 동일체질로 판정된 사람의 기질 및 성격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5):1319-1331.
20. 허성, 심상민, 김근우, 구병수. 다면적 인성검사에 관한 초보적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12(2):147-156.

Table 1. The age & sex distribution

		n	Mean±SEM
≤29	M	44	25.41±1.48
	F	15	24.93±1.67
≥30	M	15	32.80±2.15
	F	5	32.20±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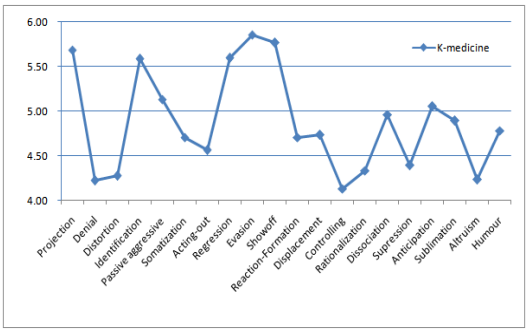


Fig. 1. Stens scores of defense mechanisms of students majoring in oriental medicine

Table 2. Stens scores of defense mechanisms of students majoring in oriental medicine

Defense mechanism	Stens scores Mean±SD
Show off	5.76±2.001
Reaction formation	4.70±1.996
Identification	5.58±1.676
Passive-Aggressive behavior	5.13±1.742
Projection	5.68±1.699
Displacement	4.73±1.998
Denial	4.22±1.669
Controlling	4.13±2.002
Suppression	4.39±1.564
Distortion	4.27±2.086
Anticipation	5.05±1.980
Rationalization	4.33±1.817
Dissociation	4.96±2.028
Somatization	4.70±1.771
Sublimation	4.89±2.057
Acting out	4.56±1.788
Altruism	4.23±1.941
Regression	5.59±2.097
Humor	4.78±2.217
Evasion	5.85±2.190

(n=79)

Table 3. Frequency of major defense mechanisms of students majoring in oriental medicine

Defense mechanism	Frequency	Percentile(%)
Show off	16	20.2
Reaction formation	9	11.4
Identification	9	11.4
Passive-Aggressive behavior	10	12.7
Projection	6	7.6
Displacement	5	6.3
Denial	1	1.3
Controlling	5	6.3
Suppression	2	2.5
Distortion	4	5.1
Anticipation	8	10.1
Rationalization	1	1.3
Dissociation	12	15.2
Somatization	3	3.8
Sublimation	8	10.1
Acting out	8	10.1
Altruism	4	5.1
Regression	14	17.7
Humor	13	16.5
Evasion	17	21.5

(n=79)

Table 4. T-test table for defense mechanisms by sex group

Defense mechanism	Man Mean±SD (n=59)	Woman Mean±SD (n=20)	Levene's test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Sig
Show off	6.05±1.833	4.90±2.269	0.440	0.510	2.152	0.036*
Reaction formation	4.90±2.155	4.10±1.294	4.590	0.036*	-1.937	0.060
Identification	5.75±1.527	5.10±2.024	2.341	0.132	1.119	0.268
Passive-Aggressive behavior	5.17±1.662	5.00±2.000	0.528	0.470	-0.106	0.916
Projection	5.80±1.471	5.35±2.254	4.608	0.036*	0.388	0.703
Displacement	4.83±1.830	4.45±2.460	1.941	0.169	-0.304	0.762
Denial	4.37±1.596	3.75±1.832	2.184	0.145	1.097	0.277
Controlling	4.20±2.132	3.90±1.586	2.918	0.093	0.013	0.990
Suppression	4.46±1.612	4.20±1.436	0.794	0.377	0.589	0.558
Distortion	4.25±2.005	4.30±2.364	1.636	0.206	-0.650	0.518
Anticipation	4.95±1.676	5.35±2.720	5.661	0.021*	-1.481	0.156
Rationalization	4.37±1.902	4.20±1.576	2.710	0.105	-0.345	0.731
Dissociation	5.29±1.992	4.00±1.864	0.627	0.432	1.926	0.059
Somatization	4.81±1.686	4.35±2.007	0.485	0.489	0.075	0.940
Sublimation	4.88±2.134	4.90±1.861	0.455	0.503	0.429	0.670
Acting out	4.68±1.736	4.20±1.936	0.700	0.406	0.028	0.977
Altruism	4.19±1.925	4.35±2.033	0.109	0.742	-0.343	0.733
Regression	5.47±2.152	5.95±1.932	0.412	0.524	-0.122	0.903
Humor	4.95±2.104	4.30±2.515	0.848	0.361	1.281	0.205
Evasion	5.90±2.015	5.70±2.697	2.369	0.129	0.177	0.860

(*p<0.05, **p<0.01)

Table 5. T-test table for defense mechanisms by age group

Defense mechanism	Age 15-29 Mean±SD (n=59)	Age 30-39 Mean±SD (n=20)	Levene's test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Sig
Show off	5.97±2.076	5.15±1.663	1.542	0.218	1.591	0.116
Reaction formation	4.83±2.052	4.30±1.809	0.584	0.447	1.028	0.307
Identification	5.75±1.657	5.10±1.683	0.180	0.673	1.501	0.138
Passive-Aggressive behavior	5.29±1.894	4.65±1.089	6.890	0.010*	-1.841	-0.071
Projection	5.98±1.676	4.80±1.473	0.016	0.900	2.808	0.006**
Displacement	5.14±1.916	3.55±1.791	0.084	0.773	3.249	0.002**
Denial	4.31±1.523	3.95±2.064	2.427	0.123	0.820	0.415
Controlling	4.34±1.962	3.50±2.039	0.346	0.558	1.637	0.106
Suppression	4.41±1.566	4.35±1.599	0.416	0.521	0.139	0.889
Distortion	4.37±2.016	3.95±2.305	0.511	0.477	0.782	0.437
Anticipation	5.42±1.958	3.95±1.638	0.250	0.619	3.023	0.003**
Rationalization	4.53±1.823	3.75±1.713	0.508	0.478	1.668	0.099
Dissociation	5.29±1.957	4.00±1.974	1.098	0.298	2.539	0.013*
Somatization	4.90±1.873	4.10±1.294	4.125	0.046*	-2.110	-0.040*
Sublimation	4.93±2.067	4.75±2.074	0.133	0.716	0.340	0.734
Acting out	4.68±1.766	4.20±1.852	0.006	0.940	1.033	0.305
Altruism	4.31±2.095	4.00±1.414	4.134	0.045*	-0.731	-0.469
Regression	5.68±2.021	5.35±2.346	0.437	0.510	0.602	0.549
Humor	4.76±2.215	4.85±2.277	0.061	0.805	-0.151	0.880
Evasion	6.08±2.128	5.15±2.277	0.041	0.840	1.668	0.099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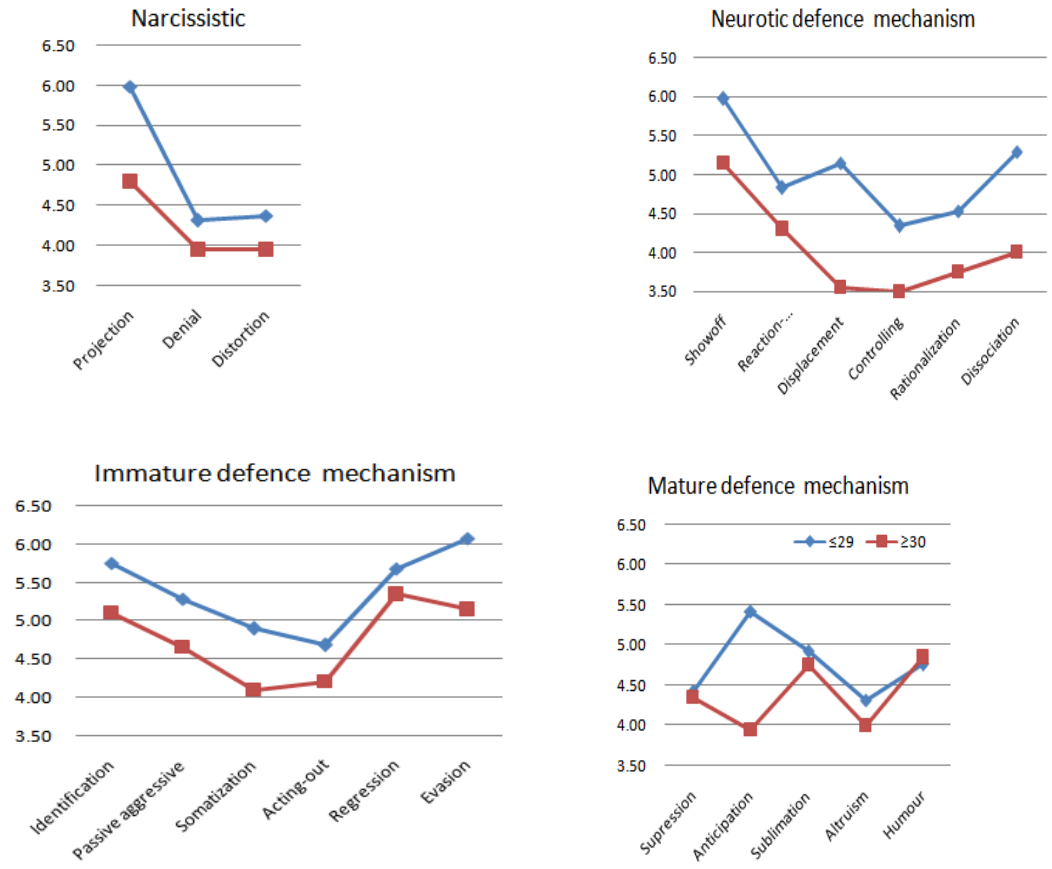


Fig. 2. Defense mechanisms by age group